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28th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18~21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중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데, ㉠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다니 황제 만조백관더러 묻기를,  
 “정 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 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옵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있는 줄 아니이다.”  
 황제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운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하고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 왈,  
 “㉡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정 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이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하고 즉시 발행할새,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 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닫고 하고 정 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차설, 정 상서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홀연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절강 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에게 기별하니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 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 오듯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을 장원 급제한 뒤 복적을 물리친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연과 혼인한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직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꿰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황제께 ㉥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자연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궤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리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 째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1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삶의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 ② '중관'은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 ③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④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 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진량에게는 정 상서를 포함할 기회가 생긴다.
- ② ㉡으로 정 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 ③ ㉢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 ④ ㉣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 ⑤ ㉣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20.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② ㉠은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③ ㉡은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④ ㉡은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⑤ ㉠과 ㉡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왔다고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